중부일보

신계용 과천시장, '제3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 참석… "헌신·노고에 감사"

정현·하재홍 | 승인 2024.03.19 16:28

신계용 과천시장이 19일 '제3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과천시청

과천시는 신계용 과천시장이 과천소방서 3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3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과천시 의용소방대원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고 19일 밝혔다.

의용소방대의 날은 의용소방대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3월 19일로 지정, 법정기념일 지정 이후 올해 3회째를 맞았다.

이날 기념식은 신계용 과천시장을 비롯해 나성수 과천소방서장, 과천의용소방대원 등 80여명이 참석해 축하영상 시청, 유공자 표창·공로패 수여,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과천시 의용소방대는 1961년 창설돼 현재 83명의 대원들이 과천시 전역에서 시민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의용소방대는 재난현장뿐 아니라 심폐소생술 교육과 안전예방 캠페인, 배식봉사, 사랑의 쌀 나누기 등 지역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우리 의용소방대원들께서 시민의 든든한 안전지킴이로서 큰 역할을 해주시는 데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봉사 정신과 헌신이 과천시를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중요한 밑거름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시에서도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현·하재홍기자

정현·하재홍 abc123@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